

시사원정대 2021-9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커버스토리

최신 시사뉴스에 대한 깊이 있는 배경설명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해설기사.

매달 하나의 시사주제를 골라 쉽고 자세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연관된 배경지식을 알려줍니다. 시사주제를 탐험하고 난 뒤에는 재미가 팡팡 터지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전개합니다.

2) 시사뉴스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3) 창의융합탐험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다룹니다. 과학, 한국사, 경제, 시사이슈, 국제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4) 문화예술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한 코너.

문화예술탐험에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까지 폭 넓은 문화, 예술 주제의 기사가 실립니다. 매달 추천도서가 제시되어 함께 책을 읽은 뒤 토론해볼 수 있습니다.

5) 리딩북

신문의 사실·칼럼을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2개의 사실·칼럼을 쉽게 이해하며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영어로 작성된 기사와 그 해석도 담겨 있습니다. 생생한 사진과 함께 국제 뉴스를 읽다 보면 상식을 키우는 것은 물론, 어휘·발음·독해·문법 능력도 향상됩니다.

6) 체험학습 비밀미션

체험학습 주제 고르기부터 장소 찾기, 체험 보고서 쓰기까지 한 번에 똑똑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2주 수업 계획표

단원	SEG NIE 9월호 2주 (90분)		
학습 목표	히어로물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특징들을 알아본다.		
활동 초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같은 세계관 통합에 대해 살펴본다. -히어로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들의 특징을 알아본다.		
구분	2주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94~99 영화로 보는 세상 - 영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 쿵후	- 히어로 - 세계관 - 쿵후	20
	- 58~61 불꽃 튀는 찬반배틀 - 훈민정음을 NFT로 만든다고?	- 훈민정음 - NFT	20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달 수업 예고	-마블 세계관처럼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상해보자.	5

[2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SEG NIE 9월호 2주		
학습 목표	히어로물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특징들을 알아본다.		
활동 초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같은 세계관 통합에 대해 살펴본다. -히어로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들의 특징을 알아본다.		
구분	2주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94~99 영화로 보는 세상 - 영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 히어로 - 세계관 - 쿵후	15
마무리	다음 달 수업 예고,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 활동 안내	- 마블 세계관처럼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상해보자.	2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어휘 Up>

수장: 장수 가운데 우두머리.

가문: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 또는 그 사회적 지위.

테러리스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폭력을 쓰는 사람.

쿵후: 무기 없이 유연한 동작으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중국식 권법.

부패: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

둔갑술: 마음대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하는 술법.

탐관오리: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발문>

1. 마블 유니버스처럼 국내 웹드라마, 웹툰, 예능에서도 세계관 통합 바람이 불고 있다. 만약 자신이 영화 및 드라마 작가라면 어떠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지 상상해 자유롭게 적어보자.
2. 내가 만약 히어로가 된다면? 어떤 능력과 특징을 갖고 싶은지 그림 또는 글로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마블 유니버스처럼... 국내 웹드라마-웹툰에도 '세계관 통합' 바람

웹콘텐츠 제작사 플레이리스트가 10일 공개한 영상 '플렌즈'에서는 자사 웹드라마 '이런 꽃 같은 엔딩'의 주인공인 레반컴퍼니 인사팀 대리 유현수와 또 다른 자사 웹드라마 '연애플레이리스트'의 서연대학교 동기 이현승, 한재인, 김민우가 한 장면에서 출연한다. 다른 작품에서 동시대를 살아온 이들은 재인이 졸업 후 현수가 일하던 레반컴퍼니에 입사하면서 다 함께 인연을 맺는다. 플레이리스트의 대표 웹드라마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해당 영상 조회 수는 공개 후 나흘 만에 79만 회를 기록했다.

플렌즈는 플레이리스트가 '플리버스'(플레이리스트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맛보기로 공개한 영상이다. 플렌즈를 선보이기 전부터 각 드라마의 배경이 됐던 서연고, 서연대, 레반컴퍼니, 카페 리필 등을 정리한

지도인 '플리버스 맵', 각 캐릭터의 소속과 나이, 등장 드라마를 정리한 프로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세계관 정리'를 진행해 왔다. 강명희 플레이리스트 마케팅총괄은 "'플리버스'라는 콘셉트를 도입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향후 신작들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플레이리스트 세계관은 '하이퍼 리얼리즘'을 추구한다. 서연고, 서연대 외에도 연리고와 연리대 등 주변 학교들은 물론이고 버스터미널까지 설정했다. 현실에 있을 법한 곳으로 세계관을 촘촘하게 구축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려 한다"고 했다.

웹툰 제작사 와이랩도 세계관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와이랩은 인류가 멸망 위기에 처한 현대를 배경으로 각기 다른 차원에 사는 능력자들이 빌런과 싸우는 '슈퍼스트링' 세계관을 바탕으로 16개의 작품을 내놓았다. 와이랩은 '어벤져스'처럼 각 웹툰의 등장인물들이 한 작품에 등장하는 IP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각각 웹툰 '테러맨'과 '부활남'의 주인공인 정우와 석환이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테러대 부활'을 만들었고, 올해 하반기 '아일랜드' '테러맨' '신석기녀'의 여성 캐릭터들을 모은 '더 퀸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10대와 20대 청년들의 삶을 담는 세계관인 '블루스트링'을 구축했고, 이를 적용한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콘텐츠 업계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기존의 세계관 확장 사례는 인기를 끈 지식재산권(IP)의 이전 시점을 보여주는 프리퀀이나 이후 시점을 배경으로 한 시퀀 또는 인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스핀오프가 주를 이뤘다. 하나의 이야기 또는 캐릭터 IP를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세계관 확장이었던 셈이다. 이제는 제작사가 자사의 모든 작품을 포괄하는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거대한 세계관을 만들고 그 안에 자사 작품들을 통합하려는 이유는 IP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모든 영화와 드라마가 속한 세계관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세계관 마케팅으로 꼽힌다. 마블 스튜디오는 마블 우주가 탄생한 기원전 138억 년경부터 시작해 현대인 2020년, 지구가 멸망한 시점인 2090년대까지의 시기에 지구와 다른 천체, 가상현실까지 거대한 시공간을 세밀하게 구성해 마블의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세계를 구축했다. 마블 히어로 중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블랙 위도우 등이 힘을 합친 '어벤져스'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팬들이

'최애캐'(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보기 위해 혹은 최애캐가 다른 캐릭터와 만드는
관계성을 보기 위해 작품을 찾기에 각 IP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동아일보 2021-07-15]

불꽃튀는 찬반배틀

훈민정음을 NFT로 만든다고?

<어휘 Up>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국보: 나라에서 지정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문화재.

훼손: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함.

재정난: 재정이 부족하여 생기는 어려움.

자산: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거금: 많은 돈.

상업적: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것.

악용: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일에 씬.

<발문>

1. 훈민정음을 NFT로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둘 중 하나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적어보자.
2. 가까운 미래에 모든 분야에서 NFT가 상용화된다면?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해 그림이나 글로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DBR/Special Report:] 디지털 작품에 소유권... NFT가 지켜드려요

최근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이자 애니메이터 비플(Beeple Crap)의 디지털 아트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가 무려 6930만 달러에 낙찰돼 크게 화제가 됐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정보에 대체 불가능한 고유성을 부여하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 덕분이다. 그동안 디지털 아트는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가격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영역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데이터 저장 형식 중 하나인 NFT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아트 작품도 경매에서 고가로 낙찰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 디지털 자산에 소유 개념 도입

수많은 정보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상에 있어 거래의 기본이 되는 '소유'의 개념

을 부여해주는 NFT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성장 중이다. NFT 관련 전문 포털사이트(nonfungible.com)에 따르면 2021년 1분기(1~3월)에 NFT 매출 총액은 20억 달러를 넘었다. 2020년 4분기(10~12월) 9400만 달러에 비해 2100% 증가했다. NFT의 소유권 부여 기능은 다양한 산업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정보에 소유자가 있고 이를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롭게 생겨날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 아트는 가장 빠르게 NFT를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있는 영역이다. 지금까지 디지털 세상에서 생성되는 재화는 그 자체로 수익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사용자를 모아서 광고나 구독 같은 간접적인 수익모델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NFT로 인해 디지털 정보에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재화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니프티게이트웨이(Nifty Gateway), 슈퍼레어(Super Rare) 등과 같이 아티스트들이 대중에게 자신들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NFT 아트 거래 플랫폼도 등장했다. 이들은 NFT가 재판매될 때마다 판매 금액의 10%를 원작자에게 제공한다. 아티스트는 작품이 거래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와 NFT를 통한 창작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으로 디지털 아트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메타버스 거래에도 큰 역할

NFT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속 의상이나 액세서리의 소유 및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실제 패션 제품을 만들고 제공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유망한 패션 디자이너를 선별해 그들의 상품을 큐레이팅하여 판매하는 미국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 기업 클로시아(Clothia)는 최근 NFT 드레스를 NFT 거래 플랫폼 파운데이션(Foundation)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고가의 제품은 약 7이더(ETH)로, 우리 돈으로 2000만 원이 넘는다. 만약 패션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가 NFT로 제작되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오픈형 마켓 플레이스에서 거래된다면 패션 기업들은 앞으로 NFT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해 제품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의 소유 증명을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하는 데 NFT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상장 주식 소유 증명을 NFT로 구현한 엔젤리그(Angel

League)와 쿼타북(Quotabook)을 들 수 있다. 국내 핀테크 기업 캡박스가 출시한 엔젤리그는 엔젤투자조합을 구성해 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이때 투자자들에게 조합 증명서를 NFT로 발행해 카카오톡에 탑재된 클립(디지털 자산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증권관리 플랫폼인 쿼타북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증권관리 플랫폼 서비스로, 서류 형태로 관리되던 주식 미발행 확인서를 NFT로 발행해 카카오톡 클립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NFT에 접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가벼운 실험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멕시코 음식 프랜차이즈 타코벨은 타코 이미지로 5종의 NFT를 발행해 30분 만에 완판했다. 판매 금액은 대부분 기부했다. 작은 실험이지만 NFT에 대해 확실히 체험하고 다음 기획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NFT라고 꼭 아트나 콘텐츠가 재료일 필요는 없다. 기업의 로고나 브랜드를 NFT화할 수 있고, 고객들의 멤버십 등급을 NFT로 만들 수도 있다.

다만 NFT를 위해 기존 사용자 경험을 망쳐서는 안 된다. NFT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설계하면 블록체인의 복잡한 사용자 경험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망칠 수 있다. 처음 접하는 소비자도 프라이빗 키, 지갑 주소 같은 어려운 개념 없이 NFT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NFT는 초기 단계 기술이고 시장도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다.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NFT가 줄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최근 고조된 NFT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 수 있지만 NFT가 보여준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장의 관심 정도에 따라가지 말고, NFT의 본질을 이해하며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2021-06-30]